

2.8만명 수용 K-팝 전문공연장 창동역 인근 '서울아레나' 첫 삽

서울시, 5만㎡ 부지에 3120억 투입
중형공연장·영화관·상업시설 구성
연간 관람객 250만명... 2027년 준공

서울 최초의 K-팝 중심 복합문화 시설이자 동북권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2일 오후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건립 예정지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동역 인근 5만㎡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1만8269석 규모의 K-팝 중심 음악 전문공연장, 최대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중형 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그간 K-컬처는 전 세계에 통하는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반면, 그에 걸맞은 음악 전문공연장은 전무했다"며 "이 때문에 K-팝 가수들은 국내 공연 때마다 공연장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도 빈번하게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글로벌 유명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대형 공연을 위한 세트 설비 반입이 가능하게 서울아레나를 설계했다. 가지각색 형태의 무대를 빠르게 설치·해체할 수 있는 전문 장비를 도입해 무대 설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운영·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총 3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는 창동 일대는 기존 지하철 및 GTX-C 노선 신설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에 힘입어 동북권의 새로운 대중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연시설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접근성까지 확보한 만큼 국내외 K-팝 팬들이 서울아레나를 편하게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연간 국내외 관람객 250만명을 유치, 새로운 공연문화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아레나가 동북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함과 동

시에 문화공연의 명소이자 K-콘텐츠 성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아레나는 한류 관광의 메카로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고 매력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동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한류 팬들과 함께 K-팝 공연을 관람하는 그날까지 서울아레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는 글로벌 K-팝 팬들이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K-컬처와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서울아레나가 도봉구, 나아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개발·확대 나서

9월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하반기부터 '시니어잡 챌린지' 시작

서울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개발 ▲어르신-일자리 매칭 통합 플랫폼 '시니어인력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인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칭)'를 오는 9월 개소한다. 센터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개발부터 취업 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시니어인턴십 운영,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잡(Job) 챌린지'가 시작된다. 이는 근로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60세 이상)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 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시니어인력뱅크(가칭)'를 구축해 내년 중 오픈할 예정이다.

시니어인력뱅크는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교육, 인턴십 정보 등 구직 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TX광명역 일대 국제·행정 중심지 육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명시는 KTX광명역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16곳을 선정 발표했다. 시는 KTX광명역 일대를 국제·행정 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이번 공모에 신청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광명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광명역세권을 국제·행정 업무 중심지로 육성하며 서부권 중

심도시로의 도약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앞두고 사전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TX광명역 주차장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올해 1월에는 '광명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직원 입시비리 첫 적발시 정원 5% 감축

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1차 위반 5%, 2차 위반엔 10% 감축

앞으로 교직원 2명 이상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은 최대 5%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중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돼, 추



교육부 청사

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과는 다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다. /이현진 기자 lhj@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자기소개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 예외를 뒀다. 바뀐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7월 3일 (수)
음력 : 5월 28일

수도권 날씨
23 ~ 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2/28, 동두천 22/27, 가평 22/28, 파주 22/28, 서울 23/27, 양평 23/29, 인천 22/25, 수원 23/27, 용인 23/27, 평택 23/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디오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프랑스 극우 돌풍에 유럽 충격...총선 코앞 영국 '노심초사' /사진 뉴스스
▲ 라인야후 '단기간 자본이동 어려워' 답변에 日총무상 "필요시 추가대응"

▲ 중국 공산당원 작년 말 9900만명, ...올해 1억 돌파 전망
▲ 시진핑, SCO 참석차 카자흐행...한 달 반새 푸틴과 또 회동



▲ 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직후 '성추문 재판' 유죄 무효화 시도
▲ 美 민주당 '잠룡' 휘트머 "바이든 100% 지지" 갈등설 부인 /사진 뉴스스